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25.(수) 11:00 / (지면) 2026. 11. 26.(목) 조간 | 배포 2026. 11. 25.(수) 06:00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항행장애물 대응 능력을 높인다

- 11.26~11.27,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로 협업 체계 공고히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항행장애물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부산에서 지방정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행장애물이란 방치된 선박이나 선박에서 유실된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거나 가라앉아 다른 선박의 운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시 인양이나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항행장애물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위험성평가시스템*을 통한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과 제거 사례, 제거를 위한 행정·사법절차 등 효과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항행장애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과 선박 모의 조종 실습을 통해 대응 절차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 장애물의 크기·형태, 해역의 수심·지형, 선박 통항 집중도 등 분석을 통한 위험도 평가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항행장애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선박 안전과 선박사고에 수반되는 해양오염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연수회가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 대응체계를 굳건히 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인수 (051-773-5850)
		담당자	사무관	최영숙 (051-773-585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체불가 대한민국 | OPEN